

2015 개정 중학교 국어 토론 단원 교육 내용 분석

윤향립 안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I. 서론
- II. 반론의 개념 및 방법
- III. 성취기준 및 단원 체제
- IV. 토론 담화 텍스트
- V. 학습활동
- VI. 결론

I. 서론

사회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 해결 방안으로 토론 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토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¹⁾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교수·학습 자료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국어 교과서이다.²⁾ 따

-
- 1)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토론은,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의 하나로 공통 과목 '국어'와 일반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에서 다루고 있다. '국어'의 토론에 관한 학년(군)별 내용 요소는 초등학교 5~6학년 [절차와 규칙, 근거], 중학교 1~3학년 [논리적 반박], 고등학교 1학년 [논증 구성]으로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를 심화·확장하여 '화법과 작문'에서는 내용 요소로 '토론[반대 신문]'을 다루고 있다(교육부 2015: 6, 77).
 - 2) 최지현·서혁·심영택·이도영·최미숙·김정자 외(2009: 92-95)는 '교과서는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담고 있는 공식화된 교수·학습의 자료'이며, 국어 교과서는 국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공하는 기능, 교수·학습 자료 제공 기능, 교수·학습 방법 제시 기능, 학습 동기 유발 기능, 연습을 통한 기능(skill)의 정착 기능, 평가 자료의 제공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라서 국어 교과서의 토론 단원 교육 내용이 토론 교육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의 내용 구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 교과서 토론 단원 내용을 실제 토론 수행 시 준용할 수 있도록 토론 단원 교육 내용을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본 논의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토론 교육 관련 연구, 논증 교육 관련 연구, 반론 교육 관련 연구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첫째 토론 교육 관련 연구로, 토론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토론 교육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토론 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는 효과적인 토론 교수·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임칠성·최복자(2004)는 학습자 스스로 토론 능력에 필요한 인지적 지식을 구성함으로써 토론 상황에서 학습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토론 수업설계 모형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최복자(2006)는 토론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 중심 모형과 수행 중심 모형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하여 형식적인 절차를 중시했던 수업 모형 연구에 수업 전략 및 토론 담화 전략을 포함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 임칠성(2011)은 ‘토론의 지도 원리’로, 합리적 소통 방식, 조화를 통한 갈등 해결, 합리적 사고 능력 신장을 들고, ‘토론 지도 방향’으로, 모든 학생들의 경험, 교사 교육 선행, 교육 내용 체계화, 교육 방법 구조화, 디지털 매체 활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과서 토론 단원 관련 연구’는 대체로 고등학교 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토론 단원 전체를 다룬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제재나 학습활동을 다룬 연구가 일부 있었다. 이선영(2011)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토론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 논증 모형을 수준별로 경험해 보는 토론 교육의 방안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김주환(2012)은 고등학교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계, 제재, 학습활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토론교육의 체계화 연구와 함께 학생 수준에 적합한 토론 자료 및 토론교육 자료 개발을 제안한 점에 의의가 있다. 김지현·전은주(2012)는 고등학교 국어 토론 단원의 교수·학습 내용 비판을 통해 영역 통

합적 단원 구성, 혼합형의 토론 지식 설명 방식, 교육과정 내용 요소와의 유기적 연결과 함께 학습자의 토론 능력 향상 및 수준을 고려한 학습활동을 제안한 점에 의의가 있다. 서영진(2014)은 초·중·고 교과서 토론 단원 대상으로 교육 수요자 관점의 토론 교육 내용 심화, 적정성을 고려한 토론 교육 내용의 재배치, 토론 능력 최종 도달점의 명세화 및 위계화, 토론 교육에 적합한 계열화 원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논증 교육 관련 연구로, 토론이 논증적 담화라는 점에서, 외국의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논증 과정을 토론 교육에 적용해 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는 토론 교육에서 논증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병곤(2004)은 초6, 중2, 고1 학습자의 토론 논증 현상 분석 후, 논증 교육의 개인 주체성 형성 관련성, 개인별·집단별 차이를 고려한 논증 교육 내용 구성, '논증행위자' 중심의 논증 관점 재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서영진(2011)은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논증 교육의 성격과 방향을 바탕으로 실제적 논증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절차적·방법적 교육 내용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발달 양상을 고려한 논증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대호(2014)는 토론 담화를 '논증 구성'과 '쟁론 수행'으로 구분하고 그 구조 및 수행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논증의 논리적 형식 도출 관점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실질적 담화 행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는 데 의의가 있다. 서영진(2014)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토론 담화 텍스트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논증 구성과 상호교섭 작용 양상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토론 담화 텍스트 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공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정찬(2016)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활용하여, 사회적 현안을 다룬 논증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으로 화제 해석, 쟁점화, 합리화의 단계를 들고, 각각의 교수-학습의 중점 사항과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김혜진(2018)은 2009·2015 개정 교육과정과 토론 단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교실토론에 적합한 논증 요소와 논증 구조를 제

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반론 교육 관련 연구이다. 반론 관련 연구는 반론 자체보다 토론의 구성 요소나 토론 교육의 일부 요소로서 반론에 대해 접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토론의 한 과정으로서 논박 행위 정도로 기술하는 것에서 반론의 논증 구조나 세부 전략 등을 거시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반론에 대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음은 긍정적이다. 서영진(2014)은 교과서 토론 담화 텍스트 내의 반론 양상을 구체적 검토 항목(상대 입론과의 관련성, 의미 재구성, 직전 선행 반론에 대한 재반박, 쟁점 적시 위한 상대 주장 요약, 인정 가능한 쟁점에 대한 동의, 반박의 논리적 타당성 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 점과 개선책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김주환(2015)은 교실수업 토론 담화에서 사용한 반박 양상을 ‘논점 회피’, ‘꼬리 자르기’, ‘상대 허점 공격’, ‘반증 사례 제시’로 분석하고, 토론교육이 절차 및 추론 중심에서 논제 탐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점에 의의가 있다. 아하영(2018)은 고등학교 토론 담화의 반론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내용 구성, 담화 전개, 상호 작용의 측면을 고려한 구체적 반론 교수학습 내용을 제안한 점에 의의가 있다. 문선희(2019)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박을 통한 논증적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특히 논증적 쓰기 입문자에게 효과적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변화하는 교육 현실과 교육과정을 고려한 토론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과 자료 개발, 그리고 학생들의 실질적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쟁점 및 논증 중심의 수행 활동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토론 교육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토론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실체적·논증적 의사소통 활동이고, 토론 교육이 교육과정을 구현하되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할 때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015 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토론 교육과정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단계로, 여기에서 다루는 논박 활동은 향후 효과적인 논증 구성을 사용한 수준 높은 토론 수행을 위한 준비 과정이므로 토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토론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다룬 논박과 관련하여 토론 담화 텍스트와 학습활동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룬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 논의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중학교 국어 교과서 9종의 논박 관련 토론 교육 내용을, 특히 토론 담화 텍스트 및 학습활동 양상 중심으로 분석·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국어 교과서 토론 단원 연구의 계열성과 지속성 측면, 그리고 교육과정 구현체로서의 토론 담화 텍스트와 학습활동의 유기적 관계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이 진행되는 시점에, 바로 이전 교육과정에 따른 토론 단원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교과서 집필에 일정 부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반론의 개념 및 방법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중학교 토론 교육의 핵심 내용인 ‘토론[논리적 반박]’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반론의 개념

입론이 논제에 대한 자신의 기본 입장을 펼치는 과정이라면 반론은 상대 입론을 논파하는 과정이다. 즉 입론이 논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들어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반론은 상대 발언의 오류와 허점을 지적하여 상대 논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자기주장의 우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반론은 입론에 입각한 논박의 과정이므로 경청의 중요성 및 상대 발언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

에 따른 고도의 인지 작용이 필요한 발언 유형이라 할 수 있다.(아하영 2018: 18 참조)

‘반론/반박’의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로, ‘refutation’, ‘rebuttal’, ‘refute’, ‘rebut’ 등이 있는데 Toulmin(2003/2006)은 ‘rebuttal’을 자료 및 정당한 이유들과 구분하여 예외나 반박의 조건들, 즉 정당한 이유와 일반적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Perellman & Olbrechts-Tyteca(1958/1969; 박경우, 2017: 84 재인용)에서는 ‘refutation’을 상대 주장에 대한 반대 논쟁을 펴는 것과 자기주장에 대한 예상 공격을 반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 Walton, Reed & Macagno(1996; 박경우, 2017: 84 재인용) 역시 ‘refutation’을 상대 주장에 대한 공격과 반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존 논의를 통해 ‘반론/반박’이, 상대 주장을 부정하는 것과 예상되는 상대 반론을 함께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는 ‘반론’³⁾을, 토론에서 상대방 논증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말하기의 의미로만 사용한 경우⁴⁾와 여기에 자기주장을 강화하는 말하기까지 포함한 의미로 사용한 경우⁵⁾가 있었다. 요컨대 상대방 의견의 약점을 부각하고 상대방 반론에 대한 자신의 논점을 방어함으로써, 자기주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비판적인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점에서 반론이 토론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 3) 분석 대상 교과서에서 ‘반론’, ‘반박’, ‘논박’의 용어가 혼용되었는데 이 중 ‘반박’은 ‘반론’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상대 반론에 대한 재반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논박’은 논증 과정에서 반박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4) 상대방 주장의 허점이나 오류를 지적하거나 반박하는 말하기(|다|),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 및 오류에 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단계(|사|), 상대측이 입론에서 내놓은 주장이나 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주장이나 근거의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말하기(|자|).(| } 안 기호는 <표 3>의 교과서 코드임.)
 - 5) 상대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신 측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변호하는 것(|바|), 상대측 주장의 논리적인 모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은 강화하는 단계(|야|).(| } 안 기호는 <표 3>의 교과서 코드임.)

2. 반론의 방법

반론의 방법에 대한 논의로, Williams & Colomb(2007/2008: 284-297)는 논증 과정에서의 궁금증, 의심, 반대의견의 처리 방법으로 ‘반론수용과 반박’을 들고, 반대의견이나 의문을 수용하고 반박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물론’, ‘그럴듯해 보이는’,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와 같은 말로 반론을 진술하거나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와 같은 말 다음에 반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형식을 활용하여 반대의견과 대안을 수용하고, 이유·근거·전제를 동원하여 반박을 뒷받침하는 것은 논증을 탄탄히 하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반박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을 수용하고 또 반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론이 반대를 위한 반박, 혹은 입론 내용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상호교섭적인 측면에서 상대방 주장 중 공감할 것은 수용하되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더 적합함을 부각하는 말하기임을 알 수 있다.

국내의 반론 방법에 대한 논의로, 백미숙·이상철(2022: 370-378)은 반론의 사전 준비, 우위에 있는 쟁점에 대한 반론, 자신들이 제시한 주장과 근거가 더 적합함 증명, 새로운 주장 금지, 역할 분담을 들었다. 이정옥(2008: 72-78)은 상대 논점의 논제 관련성 검토, 상대 근거의 타당성(논점 관련성, 자료의 적합성 등) 검토, 상대방 주장이나 근거를 활용한 반박의 방법을 들었다. 양현모·이종혁·김동건·김희성·임정훈·홍현정(2019: 93-95)은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자기주장 재강화, 새로운 주장 제시 지양을 들었다.

이들 논의들을 고려할 때 설득력 있는 반론을 펼치기 위해 논증 구조, 논점 연관성, 반론의 대상, 반론 내용 적시, 반론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논증 구조로, 논증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이유나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이다. 토론이 합리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되기 위해 합리적 논증 과정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논증은 자기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

라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힘이 강하다. 이때 자신의 논증을 올바르게 구성하여 제시함은 물론 상대방의 논증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박승억·신상규·신희선·이광모, 2005: 94-95). Toulmin(2003/2006: 157-177)과 Williams & Colomb(2007/2008: 60-79)의 논의를 참고하면, 교실토론의 주요 논증 구성 요소로 주장, 근거, 이유, 전제, 반박을 들 수 있다. ‘주장’은 논제의 입장에 대한 최상위 결론이고, ‘이유’는 근거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낼 때 추론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기제이며,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객관적 사실 정보이다. 또 ‘전제’는 이유와 주장을 이어주는 원칙이고, ‘반박’은 근거로부터 주장에 이르는 논리적 관계를 부정하는 요소이다. 이중, 부차적인 요소인 ‘전제’와 ‘반박’은 생략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 교과서의 논증 구조 분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삼았다. 먼저 논증의 완전성 측면에서, 주장·근거·이유가 명확하게 모두 드러난 ‘완전논증’과 주장·이유·근거 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불완전논증’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다시 각각 논증의 충분성 측면에서, 이유와 근거가 1회 만 제시된 ‘단일논증’과 이유와 근거가 2회 이상 제시된 ‘복합논증’으로, 논증의 적절성 측면⁶⁾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한 ‘적합논증’과 그렇지 못한 ‘부적합논증’으로 구분하였다.⁷⁾

-
- 6)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논증 분석의 적절성 판단 기준인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신뢰성은 근거가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가, 타당성은 주장과 근거 및 이유가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 공정성은 주장이 정의롭고 공평한가를 말한다 (교육부2015: 45).
 - 7) 근거의 출처가 제시된 경우,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경우 ‘적합’으로 처리하였다.

〈표 1〉 논증 구조 분석 기준



둘째 논점 연관성이다. 논증 구조가 토론 발언의 형식적인 틀이라면, 논점(쟁점)은 빌언 내용의 핵심적인 단서가 된다. 즉 논점은 논의의 중심 대립 지점으로, 논제와 관련해 찬반양측이 서로 다투는 세부 주장의 기준점이 된다.⁸⁾ 따라서 각각의 입론 및 반론은 논점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논제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논점과 논리로 논의한다면 상호 반박 및 설득이 어려워져 토론의 본질이 퇴색될 수 있다. 특히 반론에서 논점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상대방 입론 및 반론의 내용 중 논점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반론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반론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너무 지엽적이면 논의의 핵심이 흐려져 반박의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반론 대상으로, 반론은 반드시 상대측 선행 입론과 반론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역할을 분담하여 가능한 한 1~2가지의 논증에 대해 반론해야 반론의 핵심이 분명해져 자기 측 주장의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넷째 반론 내용 적시로, 반론을 할 때에는 상대의 발언 중에서 특히 논점과 관련하여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의 핵심을 짚어야 한다. 그래야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 그리고 반론에서 디를 논의의 범위가 분명해지며, 이에 따라

8) 논점은 토론 논제에 본질적이고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쟁점을로서, 찬성 측은 '예'라고 동의하지만, 반대 측은 '아니오'라고 부정하는 주장들이다(박승억 외 2005: 70).

논증 내용이 명확해지고 원활한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

다섯째 반론 전략이다. 반론 시에는 상대의 허점 및 오류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은 확실하게 강화함으로써, 상대 주장의 부당함과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제1 반론에서는 가능한 한 상대측 각각의 입론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제2 반론에서는 상대측 반론으로 약화된 자기 측 주장을 보완함으로써 자기주장의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이때 역할 및 내용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론의 구체적 전략으로 일부 동의, 상대 허점 및 오류 지적, 자신의 주장 강화를 들 수 있다. ‘일부 동의’의 경우, 토론은 같은 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의 밀하기로, 공유하는 지점과 대립하는 지점이 공존한다. 따라서 반론 시에는 공유하는 지점이나 사소한 대립 지점에 집착하지 말고, 수용 가능한 것을 인정하며⁹⁾ 핵심이 되는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박하는 것이 좋다(이정옥 2008: 77-78). ‘상대 허점 및 오류 지적’은 상대 의견의 부당하고 부적합함을 지적하여 상대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상대방 주장의 논점을 파악하고 논점이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이유와 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의 허점 및 오류에 대해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반박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 강화’ 전략은, 반론의 목적은 자기주장의 설득력을 최고조로 높여 토론에서 결정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대 주장을 약화시킴(상대 주장의 이유와 근거의 문제점 지적 등)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추가 근거 제시, 상대 의견에 반대되는 이유 제시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의 허점 및 오류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은 확실하게 강화함으로써, 상대 주장의 부당함과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부각시킬

9) 상호 인정 가능한 쟁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빌언이 구현된 경우는 토론의 상호 작용이 경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협력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서영진 2014 7: 331).

수 있다. 이를 위해 토론에 임하기 전에 자기주장의 취약점이나 결함이 무엇인지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 둠으로써 예상반론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III. 성취기준 및 단원 체제

1. 성취기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의 중학교 1~3학년(군)에 제시된 토론 관련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¹⁰⁾ 그리고 성취기준 해설에 따르면, 토론 교육 내용의 핵심이 ‘논리적 반박’이며 이를 위해 ‘논증의 신뢰성·타당성·공정성 분석 능력, 그리고 절차에 따른 토론 능력 향상에 토론 교육의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토론을 디베이트(debate)¹¹⁾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특히 반박 시 논증 능력과 토론의 절차에 따른 토론 수행 능력을 중요한 교육 요소로 본 것이다.¹²⁾

이 중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교육부, 2015: 일러두기)’으로 이는 단원의 학습목표와 직결된다. Kapfer & Ovard(1971; 박기용, 2017: 201 재인용)에서는 학습목표의 설정 목적을, 교수·학습 계획의 수립, 학습동기 유발, 교수·학습 결과 평가를

10) ‘내용 요소’는 ‘토론[논리적 반박]’이고, ‘성취기준’은 ‘[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논거를 들어 논박한다.’이다(교육부, 2015: 5-43).

11) 디베이트(debate)는 논제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어 토론의 절차에 따라 주장하고 반박하는 의사소통 교육의 한 방법이다.

12) 김주환(2012: 217)은 토론을 넓은 의미의 ‘논쟁’으로 볼 때와 좁은 의미의 ‘디베이트’로 볼 때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전자의 경우 논증과 설득의 전략, 후자의 경우 논증과 설득뿐만 아니라 토론의 규칙과 절차, 태도가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된다고 보았다.

위해서라고 하였다. 즉, 학습목표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내용의 설계,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 동기 유발, 교육 내용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9종 교과서 학습목표 모두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토론에서 타당한 논거를 들어 논박한다.’를 잘 드러내고 있다.¹³⁾ 이를 Bloom의 교육목표 분류 체계를 수정·보완한 논의 중, 학습자 중심 수업과 관련 있는 Mager식 목표 진술¹⁴⁾과 Anderson & Krathwohl의 신 교육목표 분류학의 체계¹⁵⁾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학습목표 분류 체계

학습목표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Mager식	조건(학습 장면)	준거 (수락 기준, 성취수준)	도착점 행동 (성취 행위)

- 13) 한편 {나와} {다}의 경우, 학습목표를 추가 진술하였는데 {나}는 토론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을, {다}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할 때의 전략까지 포함하고 있다. ‘토론[논리적 반박]’이 논리적 사고력을 포함한 고도의 인지 작용과 고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하는 담화 과정임을 감안하여 ‘논박’에만 초점을 두어 학습목표를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4) Mager(1962)는 잘 진술된 수업목표로 도착점 행동, 준거, 조건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Mager, 1962: Anderson & Krathwohl, 2001/2005: 170 재인용). Mager식 목표 진술은,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여 수업목표의 의미가 한정되고 목표들 간의 위계적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교수목표 진술의 막연함과 해석의 다양성을 없애고 수업과 평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이해하기는 쉽다는 장점이 있다.
- 15) 1956년 발표된 이래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의 한계점을 수정·보완한 Anderson & Krathwohl의 ‘신 교육목표분류학’에서는 교육목표 진술의 분류 체계를 ‘지식’과 ‘인지과정’으로 이원화하였다. ‘지식’은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메타인지 지식(meta-cognitive knowledge)의 4유형, ‘인지과정’은 기억하다(remember)·이해하다(understand)·적용하다(apply)·분석하다(analyze)·평가하다(evaluate)·창안하다(create)의 6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Anderson & Krathwohl, 2001/2005: 31-71).

신 교육목표 분류학 체계	지식(내용)	인지적 과정(행동)
---------------	--------	------------

Mager식으로 분류하면, ‘반박할 수 있다’는 학습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학 기준이며, ‘토론에서’는 도착점 행동이 나타나는 상태와 조건이 된다. Anderson & Krathwohl의 논의를 참고하면, ‘반박할 수 있다’는 학생이 수행할 ‘인지과정’,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는 학생이 습득하거나 구성할 ‘지식’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단원 체제

단원의 체제는, 단원의 내용과 구성 요소를 무엇으로 하며 이를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학습 과정은 물론 학습 방법이나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 또 교사에게 교수 방법을 안내하고 학습자에게 학습 방안을 제시해 주는 ‘조직화’를 담당하는 기능을 한다(정인석, 2002: 183). 따라서 교과서를 개발하거나 교과서 내용을 연구할 때 단원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15 개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토론 관련 내용을 대부분 소단원 중심으로 편성하였다.¹⁶⁾

16) 9종의 교과서 중, 8종이 토론 관련 소단원을 독립적으로 편성하였고 1종의 경우에만 소단원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독서의 과정과 독서토론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1종의 경우, 토론과 직접 관련 있는 ‘독서 토론하기’ 부분만을 소단원으로 처리하여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3〉 토론 단원 체제

교과서	성취기준 반영방식	단원 편성 방식	구성 단계		
			도입	전개	정리
{가}	단일	독립적 소단원	문제 발견하기	본문 제재, 학습활동	정리하기
{나}	단일	독립적 소단원	생각 열기, 지식 마당	이해 마당, 적용 마당	※ 대단원 정리
{다}	통합	독립적 소단원	생각 열기	학습활동	생각다지기
{라}	단일 ¹⁸⁾	통합적 대단원 속에 토론 관련 활동 제시	생각과 발견	본문 제재, 이해와 탐구, 문제 해결과 적용	※ (대단원) 정리와 점검
{마}	단일	독립적 소단원	생각 열기	본문 제재, 이해 학습활동, 적용 학습활동	활동마당
{바}	단일	독립적 소단원	생각 열기	활동 1, 활동 2	※ 대단원을 닫으며
{사}	단일	독립적 소단원	생각 열기	본문 제재, 내용 학습활동, 목표 학습활동, 적용 학습활동	소단원 마무리
{아}	단일	독립적 소단원	생각 깨우기	학습활동, <u>스스로 해 보기</u>	생각 모으기
{자}	단일	독립적 소단원	소단원 열기	본문 제재, 학습활동(내용 학습, 목표 학습)	소단원 닫기

먼저 성취기준 반영 방식을 살펴보면, {다}를 제외한 8종의 교과서가 ‘토론[논리적 반박]’과 관련한 단일 성취기준([9국01-05])을 반영하였다. {다}는 ‘듣기·말하기’ 영역 내에서, ‘토론[논리적 반박]’ 관련 성취기준과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기’ 관련 성취기준([9국01-07]) 두 가지를 통합하여 소단원을

17) 통합적 대단원 중 ‘독서 토론하기’ 부분만 해당한다.

편성하였다.¹⁸⁾ 전자의 경우, ‘토론[논리적 반박]’에 집중하여 관련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으나 통합적 활동에 한계가 있고, 후자의 경우, 소단원 내에서 통합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토론 교수·학습 활동의 충실판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토론 단원 편성 방식을 살펴보면, 8종의 교과서는 토론 관련 단일 성취기준 중심으로 독립적인 소단원을 구성하였으나, {내}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¹⁹⁾와 ‘독서 토론하기’를 연계하여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하였다. 이는 대단원 내에서 영역 간 통합을 시도함으로써 읽기를 통한 자료·정보 활용 능력과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길러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독서(읽기)와 토론(듣기·말하기)의 통합적 활용이 가능함을 보여 준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독서에 초점이 맞춰져 토론이 독서의 한 과정으로 축소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역 간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치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성 단계를 살펴보면, 독립적 소단원을 구성한 8종 중, 6종이 소단원 내에 ‘도입-전개-정리’ 3단계를 둔 데 비해 {내}, {바}는 대단원 정리 단계에서 소단원 학습 내용을 정리하였다. 독립적으로 소단원을 편성한 경우라면 소단원 내에 정리 단계를 두는 것이 학습 효과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 학습목표 및 단원 체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성취기준을 잘 반영하여 학습목표를 진술하였으며, 단원의 체제에서는 대부분 ‘논박’ 관련 단일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소단원을 구성하여 학습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었다.

18) ‘토론[논리적 반박]’과 ‘말하기 불안에의 대처’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제시된 ‘핵심 개념’이 다르다. 전자는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 후자는 ‘듣기·말하기 구성 요소’에 속한다.

19) 대단원 내용을 소제목 ‘마음이와 민재의 독서 대화’와 ‘독서 토론하기’로 구분하였다. 이 중 ‘마음이와 민재의 독서 대화’ 부분에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다루고 있다.

IV. 토론 담화 텍스트

토론 담화 텍스트의 본격적 분석에 앞서 분석 대상 교과서의 본문 제재 방식을 살펴본 결과, 9종 교과서 토론 단원의 본문 제재 제시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4〉 본문 제재 제시 방식

본문 제재 제시 방식	교과서
학습 대화 텍스트와 토론 담화 텍스트 함께 제시	{라}, {아}
학습 대화 텍스트만 제시	{사}
토론 담화 텍스트만 제시	{가}, {나}, {다}, {마}, {바}, {자}

본문 제재 제시 방식²⁰⁾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학습 대화 텍스트와 토론 담화 텍스트를 함께 제시한 경우로, {라}, {아}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이론과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충분한 토론 지식도 얻고 실례를 통해 토론 활동 시 실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원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실제 토론 활동의 비중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 토론 활동에 비중을 두고 관련 지식을 간략하고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좋다.

둘째, 토론 기본 지식에 관한 학습 대화 텍스트만 제시한 경우로, {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토론 지식(토론의 특성, 비판적 듣기와 논리적 반박, 토론의 단계와 진행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 본문 제재 중, 학습내용에 대한 정보를 다룬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대화 텍스트는 ‘학습 대화 텍스트’, 토론 담화 과정을 실례로 든 텍스트는 ‘토론 담화 텍스트’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토론 활동의 실례를 제공하지 않아 학생들이 실제 토론을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²¹⁾

셋째, 토론 담화 예시 텍스트만 제공한 경우로 {가}, {나}, {다}, {마}, {바}, {자}의 6종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토론의 절차와 규칙에 따른 구체적 토론의 실례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토론을 실행할 때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6종의 교과서 모두 토론 담화 텍스트 앞뒤의 공간이나 교과서 날개 부분을 활용하여 실제 토론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였다. 토론의 모범이 되는 토론 담화 텍스트와 관련 배경 지식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토론 담화 텍스트 양상

토론 단원에서는 본문 제재로 주로 토론 담화 텍스트를 활용한다. 토론 담화 텍스트는, 듣기·말하기 지식과 기능이 토론이라는 의사소통 맥락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된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담화 자료이다(서영진 2014: 297). 또 토론 담화 텍스트는 주로 본문 제재로 위치하며 학습목표 달성과 학습활동 자료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나아가 토론 활동의 모범적 예시 자료로 인식되어 학습자들은 이를 직간접적으로 모방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법적·절차적 지식으로서의 토론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토론 수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토론 담화 텍스트를 신중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

9종 교과서의 본문 제재로 제시된 토론 담화 텍스트 양상은 다음과 같다.

21) 다만 {나}가 학습 대화 텍스트의 ‘비판적 듣기와 논리적 반박’ 부분에 찬성 측 입론의 예를 하나 제시하여 실제 토론 관련 활동을 단편적이나마 경험하게 한 점은 긍정적이다.

〈표 5〉 토론 담화 텍스트 양상

교과서	담화방식	토론 절차(횟수)	토론인원	범례성	논제의 특징		
					논제	유형	내용
{기}	일반토론 ·가상 교실토론	입론(2)- 반론(2)	2:2	모범 담화	유전자 변형 식품 완전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책	자연·환경
{나}	일반토론 ·가상 교실토론	입론(1)- 반론(2)- 최종 변론	2:2	일부 의도적 결여 담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시행되어야 한다.	정책	법과 윤리
{다}	일반토론 ·가상 교실토론	입론(2)- 반론(2)	2:2	모범 담화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정책	자연·환경
{라}	독서토론 ·가상 교실토론	입론(1)- 반론(2)- 최종 결론(1)	2:2	모범 담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책	과학·기술
{마}	일반토론 ·가상 교실토론	입론(2)- 반론(2)	2:2	일부 의도적 결여 담화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정책	학교생활
{바}	일반토론 ·가상 교실토론	입론(1)- 반론(2)- 최종 발언(1)	2:2	모범 담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책	사회·문화
{사}	일반토론 ·가상 교실토론	입론(1)	-	전체 의도적 결여 담화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	정책	자연·환경
{아}	일반토론 ·가상 교실토론	입론(1)- 반론(2)- 최종 발언(1)	2:2	일부 의도적 결여 담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정책	자연·환경
{자}	일반토론 ·가상 교실토론	입론(1)- 반론(1)- 반박(1)- 최종 변론(1)	2:2	모범 담화	우리 사회에 동물원은 필요하다.	가치	자연·환경

먼저 토론 담화 방식으로, 9종 교과서 중 8종이 일반 토론·가상 교실토론,²²⁾ 1종(라)이 독서토론 및 가상 교실토론의 방식을 취하였다. 토론은 고도의 사고력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학교 토론 교육 단원에서는 토론에 미숙한 학생들의 실질적 토론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일반토론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토론 절차로, {사}²³⁾를 제외한 8종의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고전적 토론 방식²⁴⁾을 사용하여 ‘입론-반론’ 중심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본격적 토론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중학생들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토론 유형인 고전적 토론 방식이 논박 활동에 집중하기에 적절한 토론 방식이다. 한편, {나}, {라}, {바}, {아}, {자}는 ‘최종 변론(혹은 최종 결론, 최종 발언)’을 추가 제시하였고,²⁵⁾ {다}는 2차 반론에 양측 주장의 ‘최종 정리’를 포함하였다. 또 {라}, {바}는 2차 반론에 교차질의[반대신문] 기회를 추가하였으며, {자}는 1차 반론을 ‘반론’, 2차 반론을 ‘반박’이라 하여 토론의 단계를 따로 구분하였다. ‘논박’ 활동의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를 고려하는 동시에 반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론 담화 텍스트를 ‘입론-반론’ 중심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범례성(範例性) 여부로, 모범이 되는 토론 담화만을 제시한 경우는 5종이었다(가), {다}, {라}, {바}, {자}). 의도적으로 논리성이 결여된 발언을 제시하고 비판적 활동과 연결한 경우는 4종이었다. 이 중, {나}, {마}, {아}는 모범성이

-
- 22) {아}의 경우, 교내 토론 대회 토론 상황을 설정하였으나 이 경우도 일반적인 교실토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23) {사}의 경우, 학습 내용 설명 자료로 찬성 측의 입론 하나만을 토론 담화 텍스트로 제시하였다.
- 24) 찬성 측과 반대 측을 각각 두 명씩 구성하여 참여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입론과 반론을 하는 토론 방식이다.
- 25) {나}의 경우, 토론 담화 텍스트에서 ‘최종 변론’에 대한 토론 사회자의 안내만 있고 구체적 ‘최종 변론’의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결여된 발언 일부를 제시하고,²⁶⁾ {사}는 모범성이 결여된 입론 하나²⁷⁾만 제시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토론 담화는, 기본적으로 토론의 모범으로 인식되며 직간접적으로 토론의 본보기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모범이 되는 토론 담화 내용만을 담을 경우, 텍스트 자체의 토론 범례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의도적으로 모범성이 일부 결여된 담화를 제시한 후 학습활동 등을 통한 비판적 활동을 유도할 경우, 토론 담화의 타당성 판단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논제의 유형으로, 8종 교과서가 정책 논제를 다루고 {재}는 가치 논제를 다루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가치 판단보다는 현안 해결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 논제는, 현안에 대한 가치 기준과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 복합적인 논제 분석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으나(이선영, 2011: 97) 정책을 제안하는 찬성 측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가치 논제는, 가치 판단의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찬반 입장이 비교적 공평한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으며(김주환, 2012: 32) 현 상황의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이 있으나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까지 제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교실 토론의 상황에 따라 논제의 유형을 탄력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제의 내용은 자연·환경(5종), 법과 윤리(1종), 과학·기술(1종), 학교생활(1종), 사회·문화(1종)였다. 모두 교육과정 '자료의 예'에서 제시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문제나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교육부 2015: 56)'와 관련한 내용을 논제로 다루었다.

26) {나}의 '반론1반대', '반론2찬성', {마}의 '반론1반대', {아}의 '입론1반대', '반론2찬성'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

27) 비판적 듣기와 논리적 반박의 방법을 학습하기 위한 예시 장치의 역할을 한다.

2. 토론 담화 텍스트 분석

토론 단원은, 실제 토론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므로 명제적 지식보다 방법적·절차적 지식과 활동에 중점을 두어 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 토론 과정에서의 반박 시의 논증 능력, 그리고 토론의 절차에 따른 토론 수행 능력을 중요한 교육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교과서 대부분은, 입론과 반론을 포함한 의도적으로 구조화된 토론 담화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었다. 토론 단원에 제시된 토론 담화 텍스트는, 교육 목표적인 측면에서는 성취기준이 반영된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장치의 하나이다. 수업 현장에서는 학습활동의 제재로서 토론 활동의 모델이자 토론 수행의 전범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며, 학습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이를 모방하게 된다. 따라서 토론 담화 텍스트를 매우 정교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토론 담화 텍스트의 본래적 기능과 토론 담화 텍스트에 교육과정 내용 요소인 ‘토론[논리적 반박]’이 어떻게 구현되었나를 살펴보기 위해 ㈔를 제외한 8종 교과서의 입론과 반론의 제시 양상을 단위논증별로 분석하였다.

1) 입론

입론은 논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적절한 논거를 들어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빌언이다. 토론의 논제에는 본질적으로 찬반양측 대립의 접점인 핵심쟁점, 즉 논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론은 논점에 대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론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장, 이유·근거가 논리적이어야 하고, 논점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입론의 논증 구조와 논점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1) 논증 구조

입론은 논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적절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발언이므로, 논증 구조가 탄탄해야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논점에 대한 주장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8종 교과서 입론의 논증 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²⁸⁾

〈표 6〉 토론 담화 텍스트 입론의 논증 구조

교과서	입론1		입론2	
	찬성 측	반대 측	찬성 측	반대 측
{가}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원전(단일, 적합)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나}	불원전(단일, 적합)	불원전(단일, 적합)	-	-
{다}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원전(복합, 적합)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라}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
{마}	원전(복합, 적합)	원전(단일, 적합)	원전(단일, 적합)	원전(단일, 적합)
{바}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
{야}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
{자}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

28) 입론에서 의도적 결여 담화를 제시한 후 학습활동 등에서 비판적 활동을 유도한 경우, 그 부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야]입론1반대’ 일부와 ‘[나]의 토론 담화 텍스트 전체(입론 1)’가 이에 해당한다.

입론의 단위논증 22건을 분석²⁹⁾한 결과, 완전논증이 20건(90.9%), 불완전논증이 2건(9.1%)이었다. 불완전논증에 비해 완전 논증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은 대부분의 토론 담화가 논증의 요소를 제대로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불완전논증의 경우, 주장·근거·이유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좋은 논증이 될 수 없고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완전논증 20건 중, 단일논증과 복합논증은 각각 7건(35%), 13건(65%)이었다. 복합논증은, 하나의 주장에 대해 2개의 이유나 근거를 들어 좀 더 탄탄한 논증 구조를 갖추었다.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2개 이상 제시할 때 더욱 설득력이 강한 논증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완전논증 20건 중, 적합논증과 일부부적합논증³⁰⁾은 각각 6건(30%), 14건(70%)이었다. 특히 일부부적합논증이 많았는데 근거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근거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 전문가의 견해 등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자료를 사용하고 출처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불완전논증 2건은 모두 단일·적합논증이다. {나}, {바}의 경우, 주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는데, 특히 {바}의 경우 논제의 찬반 입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만 제시하였다. 논증의 요소 중 가장 핵심은 주장이다. 토론 참여자, 배심원, 청중에게 찬반 입장은 물론 자기 측 주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논증의 가장 기본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단위논증 중 논증 구조가 가장 탄탄한 ‘완전논증(복합논증, 적합논증)’은 2건(9.1%), 다음으로 ‘완전논증(단일논증, 적합논증)’은 4건(18.2%)으로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논증 구조를 고려하여 입론을 더욱 정교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완전논증(복합논증, 일부부적합논증)’이었다(9건, 40.9%). 이 경우에도 주장, 이유, 근거를 다 갖추었으나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드물게 ‘주장

29) 입론의 단위논증은 토론 참여자 1인의 담화 단위를 기준으로 하였다.

30) 완전논증 중, 부적합논증은 없다. 적합논증 외에는 모두 일부부적합논증이었다.

+이유+근거+반론 예측'의 논증 구조를 제시한 경우가 있었는데³¹⁾ 입론에서 '반론 예측'까지 포함하면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³²⁾ <표 6>에서 보듯이 입론을 한 번만 제시한 경우로, {나}, {라}, {바}, {아}, {자}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반론은 모두 두 번씩 제시한 것으로 보아,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입론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반론의 비중을 더 높이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입론의 논증 구조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완전논증

주장·근거·이유를 모두 갖춘 논증 구조이다. 모두 20건으로, '단일·적합논증'이 4건, '단일·일부부적합논증'이 3건, '복합·적합논증'이 2건, '복합·일부부적합논증'이 11건이다. '완전논증' 중, '복합·일부부적합논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55%)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①-1) 단일논증

① 쾌적한 환경일 때 우리는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미국의 한 경제 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중국의 입학시험

-
- 31) …… **[근거 및 이유1]** 동물 실험을 통해 백신이 개발된 이후 이러한 질병들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 **[근거 및 이유2]** 이 외에도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많은 화장품이나 약품들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반론 예측] 물론 동물 실험을 거쳤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부작용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랫동안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장]** 이처럼 동물 실험은 효용성이 높으므로 계속되어야 합니다.((다입론2번대))
- 32) 일부 교과서에서, 학습활동 토론 계획에 '예상 반론'을 포함하였으나 토론 담화 텍스트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는 담화 텍스트의 분량을 조절을 위해서 혹은, 텍스트 내에서 재반론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점수를 분석한 결과, …… 이는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온도가 높을 때 시험 점수가 낮아진 까닭은 우리 몸이 두뇌 활동에 쓸 에너지를 체온을 낮추는 데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래프 제시 - 실외 온도에 따른 중국의 시험 점수, 『워싱턴 포스트』, 2018. 7. 20.) 따라서 [이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주장]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하여 쾌적한 교실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내입론2찬성)

㉡ 지구에는 인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존재하지만 인간만이 주어진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인간은 동물 실험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약을 개발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감상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유] 인류의 발전을 위해 인간은 동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장] 동물 실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내입론1반대)

㉠은 ‘적합논증’으로, 주장과 주장을 입증하기에 적합한 이유와 근거를 한 가지씩 들어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출처가 분명한 구체적인 근거를 들되 믿을 만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과 공정성도 갖추었다. ㉡은 ‘일부부 적합논증’으로, 근거가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근거의 출처도 불분명하다.

(①-2) 복합논증

㉠ [이유1] 동물 실험의 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근거1] 실제로 1956년 독일에서는 팔다리가 짧은 기형아들이 유난히 많이 태어났는데, …… 이것은 3년간 동물 실험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약으로 판매된 것 이었는데, 인간이 복용하자 기형아 출산이라는 끔찍한 부작용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근거2] 미국 식품 의약국의 자료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퍼센트이고,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에서 똑같이 나타날 확률은 약 8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유2] 인간과 동물은 병이 발생하는 과정과 증상이 달라서 대상에 따른 치료법도 달라야 합니다. …… **[주장]** 이처럼 동물 실험은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금지해야 합니다.((다)입론2찬성)

㉡ **[주장]** 저희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이유1]** 그 첫째 이유는 동물원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거1]**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 행동을 보이며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동물원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2]** 두 번째 이유는 동물원이 교육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거2]**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을 보는 것이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관람객은 동물을 전시와 오락의 대상으로 여기고 동물의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게 될 수 있습니다.((애)입론1찬성)

㉠은 ‘적합논증’으로, 주장이 분명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이유와 근거를 두 가지씩 들어 논증 구조가 매우 탄탄한 경우이다.
㉡은 ‘일부부적합논증’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타당성이 있으나 근거의 신뢰성이 부족한 사례이다. ‘근거1·2’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특히 ‘근거2’는 구체적 근거 없이 의문형과 추측성 발언을 사용하여 ‘이유2’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② 불완전논증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 논리의식에 의거하여 주장을 합리화한 사례가 있었다. 불완전논증으로 2건의 ‘단일·적합논증’ 사례만 있었다.

[이유] 이기적인 사회 풍조를 바꾸고, 사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법으로 어느 정도 도덕을 강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장]** 따라서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내)입론1찬성)

이 사례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들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를 들지 않아 강한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2) 논점 연관성

입론의 논점 연관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토론 담화 텍스트 입론의 논점 연관성

교과서	논제	논점		연관성
{가}	유전자 변형 식품 원전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찬성	1. 유전자 변형 식품 완전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
		반대	1. 유전자 변형 식품 완전 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2. 유전자 변형 식품 완전 표시제는 가능한가?	
{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시행되어야 한다.	찬성	1.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사회 연대를 강화하는가?	×
		반대	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다}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찬성	1.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가?	○
		반대	2. 동물 실험은 효용성이 높은가?	
{라}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찬성	1.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	○
		반대	2.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마}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	찬성	1. 에어컨 사용 자율화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가? 2. 에어컨 사용 자율화는 학습 효과를 높이는가?	△
		반대	1. 에어컨 사용 자율화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가? 2. 에어컨 사용 자율화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가?	
{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찬성	1. 경쟁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 2. 경쟁은 부작용을 낳는가?	×
		반대	1. 경쟁은 인간의 본능인가? 2. 경쟁은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가?	
{아}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찬성	1.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
		반대	2.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자}	우리 사회에 동물원은 필요하다.	찬성	1. 동물원은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는가? 2.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X
		반대	1. 동물원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가두어 놓은 곳인가? 2. 동물원은 동물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8종 교과서 중, 찬반양측의 입론이 논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3종({다}, {라}, {아}), 일부 연관되어 있는 것은 2종({가}, {마}),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3종({나}, {바}, {자})이었다.

① <찬성 측> 저희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첫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논점1]**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차를 도입하면 교통사고를 줄여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둘째, **[논점2]** 자율주행차는 이익과 장점이 많습니다. 주차비와 유지비가 들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지루한 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하기 힘든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이 편리해집니다.({라}입론1찬성)

<반대 측> 저희는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 첫째, **[논점1]** 자율주행차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돌발적이거나 혼잡한 상황에서 인공 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둘째 **[논점2]**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자율주행차 도입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작용도 많습니다.({라}입론1반대)

② <찬성 측> 저희는 우리 사회에 동물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논점1]**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논점2]** 동물원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입론1찬성)

<반대 측> 저희는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논점3]** 동물원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우리에 가두어 놓은 곳이

기 때문입니다. …… 둘째, [논점4]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입론1반대)

㉠은 논제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에 대한 찬반양측 입론이 논점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 ‘자율주행차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양측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의견이 엇갈리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이다. ㉡은 논제 ‘우리 사회에 동물원은 필요하다.’에 대한 입론으로, 찬반양측이 서로 다른 논점에 대해 발언을 주고받고 있다. 이 경우, 토론의 핵심이 흐려져 향후 반론 과정이 복잡해지고 논의 전개가 혼란스러워져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자기 측 주장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질 소지가 있다.

2) 반론

설득력이 강한 반론을 구성하기 위해서 논증 구조, 논점 연관성, 반론의 대상 및 전략, 반론 내용 적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종 교과서 토론 담화 텍스트의 반론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³³⁾

33) 반론 단계가 제시되지 않은 {사}와 일부 의도적 결여 담화(나)의 ‘반론1반대’, ‘반론2찬성’, {마}의 ‘반론1반대’, {아}의 ‘반론2찬성’)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안의 ‘반론 순서’는 각 교과서의 발언 순서에 따랐다. 비판적 활동을 위한 의도적 결여 발언을 제시한 경우는 ‘*’ 표시하고 음영 처리하였다.

표 8) 토론 담화 텍스트의 반론 양상

교과서	반론 순서	논증 구조	논점 연관성	반론 대상 (상대측)	반박 내용 적시	반론 전략			
						일부 동의	상대 허점 및 오류 지적	자신의 주장 강화	
{가}	반론 1	반대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입론1	○	○	근거의 해석상 문제점 지적	추가 이유·근거 제시
		찬성	원전(단일, 적합)	○	입론1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제시
		반대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반론1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제시
	반론 2	반대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입론2	○	-	근거의 대상 범위 부적절함 지적	추가 이유·근거 제시
		찬성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반론1	○	-	근거의 논리성 부족 지적	-
		찬성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입론2	○	-	이유의 사실무근 지적	추가 이유·근거 제시
{나}	반론 1	반대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입론1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제시
		찬성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반론1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및 추가 이유·근거(보완책) 제시
	반론 2	반대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반론1	○	-	추가 근거의 비현실성 지적	추가 이유·근거 제시
		찬성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반론2	○	-	-	추가 이유·근거 제시
{다}	반론 1	반대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입론1	○	-	근거의 대상 범위 문제 지적	-
		찬성	원전(단일, 적합)	○	반론1	○	-	근거의 인식의 문제점 지적	-
	반론 2	반대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입론2	○	○	근거의 불충분 지적	상대 근거를 다시 근거로 이용
		찬성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반론2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및 추가 이유·근거 제시

{라}	반론 1	반대	원전(단일, 적합)	○	입론	○	-	이유의 문제 상황 및 부작용 지적	반대되는 이유·근거 및 추가 이유·근거 제시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	-			
		찬성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입론	○	-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	-			
	반론 2	반대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반론1	○	-	이유의 문제 상황 지적, 근거의 간과한 사실 지적	반대 이유·근거 제시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	-			
		찬성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반론1	○	-	근거의 오류 인정 유도	추가 이유·근거 (부작용·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	-			
{마}	반론 1	반대	*불원전(단일, 부적합)	○	입론2	○	-	상대의 평소 태도 지적	반대되는 이유·근거 및 추가 이유·근거(대안) 제시	
			원전(단일, 적합)	○		○	-			
		찬성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반론1	○	○	근거의 간과한 사실 및 문제 상황 지적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	-			
	반론 2	반대	원전(단일, 적합)	○	반론1	-	-	이유의 논리적 부당성 지적	추가 이유·근거 제시	
			원전(단일, 적합)	○		○	-			
		찬성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반론2	-	-	상대 근거를 다시 이유·근거로 이용	반대되는 이유·근거 제시, 상대 이유를 다시 이유로 이용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	○			

{바}	반론 1	반대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입론1	○	-	근거의 간과한 사실 지적	추가 이유·근거 제시
		찬성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입론1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제시
	반론 2	찬성	원전(단일, 부적합)	×	반론1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제시
		반대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반론1	○	-	근거의 간과한 사실 지적	의문형 표현으로 상대의 수긍 유도
{아}	반론 1	반대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입론1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및 추가 이유·근거 제시
		찬성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반론1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및 추가 이유·근거 제시
	반론 2	찬성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입론1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제시
		반대	원전(단일, 적합)	○	반론2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제시
{자}	반론 1	반대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입론1	○	-	이유의 간과한 사실 지적	-
			원전(단일, 일부부적합)	○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제시, 의문형 표현으로 상대의 수긍 유도
		찬성	불원전(단일, 적합)	○		○	○	-	반대되는 이유 제시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	-	근거의 성급한 일반화 오류 지적	이미 제시된 근거의 구체화
	반론 2	찬성	원전(단일, 적합)	○	입론1	-	○	-	추가 이유·근거 제시
			원전(단일, 적합)	○		○	-	-	이미 제시된 근거의 구체화
		반대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반론1	○	-	-	반대되는 이유·근거 제시
			원전(복합, 일부부적합)	○		○	-	근거의 간과한 사실 지적	의문형 표현으로 상대의 수긍 유도

*음영 부분(의도적 결여 발언), ○(적합), △(일부부적합), ×(부적합), -(해당 사항 없음)

(1) 논증 구조

8종 교과서 반론 중, 의도적 결여 담화 4건을 제외한 단위논증 40건의 논증 구조를 분석³⁴⁾한 결과, 완전논증이 39건(97.5%), 불완전논증이 1건(2.5%)으로, 대부분의 반론이 논증의 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

완전논증 39건 중, 단일논증이 30건(76.9%), 복합논증이 9건(23.1%)으로, 단일논증의 비율이 높았다. 반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복합논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완전논증 39건 중, 적합논증이 10건(25.6%), 일부부적합논증이 28건(71.8%), 부적합논증이 1건(2.6%)으로, 일부부적합 중에는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불완전논증(단일, 적합)은 1건으로 그 분포가 매우 미미했다.

반론의 단위논증 40건 중, 논증 구조가 가장 탄탄한 ‘완전논증(복합논증, 적합논증)’은 1건(2.5%), ‘완전논증(단일논증, 적합논증)’은 10건(25%)으로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완전논증(단일논증, 일부부적합논증)’으로(18건, 45%), 주장·이유·근거는 대체로 잘 갖추었으나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더 탄탄한 반론을 위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들되 그 출처를 함께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① 완전논증

(①-1) 단일논증

⑦ [추가 이유]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만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동물원이 종 보전 기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추가 근거1] 미국의 ○
○동물원은 멸종 위기에 놓인 희귀 야생 동물의 멸종을 막는 데 노력을 기

34) 반론은 주로 상대방 입론의 이유(하위 주장)와 근거를 대상으로 펼쳐지므로, 상대 입론의 각각의 이유 및 근거에 대한 반론을 하나의 단위논증으로 삼았다. 다만, 교차질의 과정을 추가한 {라}, {마}의 경우, 토론 참여자 1인의 반론 담화단위를, 그 반론과 관련한 질문 과정 까지 포함한 의미 단위로 묶어 논증 구조를 분석하였다.

울이고 있고, [추가 근거2]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과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여우를 번식시켜 야생 적응 훈련 뒤 방생하는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반론2찬성)

- ㉡ 반대 측에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셨는데, **[반대되는 이유]** 이는 기술 개발과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대되는 근거1]** 기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서 일어난 자율주행차의 사고는 앞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되는 근거2]**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운전면허 같은 제도를 만들어 안전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라)반론1찬성)
- ㉡ 반대 측에서는 가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반대되는 이유]** 저희는 다 함께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반대되는 근거]** 옛날부터 사람들은 전 세계의 인구가 많아지면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먹을거리를 생산하여 이전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아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까닭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식량을 독점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굶어 죽어 가고 있는 빈민국의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함께 협력해야 함께 살아 나갈 수 있습니다. (바)반론2찬성)

⑦은 적합논증으로, 반대 측 직전 반론³⁵⁾을 반박하기 위해 자기 측 입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이유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 2가지를 들어 자기 측 주장(우리 사회에 동물원이 꼭 필요하다.)을 강화하고 있다. ⑧은 일부부적합논증으로, 상대측의 주장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

35) **[반대 측 직전 반론]** 찬성 측에서는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에는 멸종 위기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동물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반론1반대)

로 도입하면 안 된다.’에 대한 이유 ‘자율주행차는 안전하지 않다.’에 대한 반론이다.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한 이유를 들었으나 근거가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고 있어 신뢰성이 부족하다. ⑤은 부적합논증으로, 상대측의 주장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필요하다.’의 이유인 ‘가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에 대한 반론이다. 반대 이유에 대한 근거로, ‘빈민국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보다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유에 대한 근거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³⁶⁾ 근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

(①-2) 복합논증

반대 측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완전 표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셨는데,³⁷⁾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반대되는 근거1] 유럽연합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성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이유1]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전자 변형 식품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되는 이유2] 만약 유전자 변형 식품의 완전 표시제를 의무화하면 소비자들이 확인하지 못한 채 유전자 조작 식품을 섭취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이유3] 그리고 안전한 식품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측 주장 강조] 유전자 변형 식품 완전 표시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가반론2찬성)

이 사례는 ‘일부부적합논증’으로, 상대측 반론의 이유인 ‘유전자 변형 식품의 완전 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에 대해 반대 이유 3가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1가지를 들었다. ‘반대되는 근거1’에 분명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

36) ‘식량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과학 기술의 발전’을 들고, ‘식량 문제’의 원인으로 ‘탐욕’을 들면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37) [상대측 발언] …… 결국 유전자 변형 식품 완전 표시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입니다.(가입론2반대)

고, ‘반대되는 이유2, 3’에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2) 불완전논증

반대 측은 동물원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우리에 가두어 놓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동물원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지어진 것은 맞습니다. **[반대되는 이유]** 하지만 생태계가 파괴되어 동물들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힘든 지금, 동물원은 서식지가 부족한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자}반론1찬성))

이 사례는 반론의 타당한 이유를 들었지만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자기 측 주장을 강화하지 못한 경우이다.

(2) 논점 연관성

8종 교과서 대부분이 입론이나 반론에서 제기한 논점 중심으로 반론이 전개되었고, {비}의 경우에만 일부 논점에서 벗어난 발언이 있었다.

- ① 찬성 측은 **[논점]** 자율주행차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셨지만, [반대되는 이유와 근거] 해킹된 자율주행차가 테러에 이용된다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2018년 베네수엘라에서 사람이 원격 조종하는 드론이 폭탄을 실고 날아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라}반론1반대)
- ② …… 찬성 측은 경쟁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쟁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 / 경쟁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 / **[논점에서 벗어남]**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비}반론1반대)

①은 상대측 논점에 맞추어 반론을 펼친 경우이다. 논제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에 대한 논점 ‘자율주행차는 안전한가?’에 대한 반대 측 반론으로, 논점에 대해 반대되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 상대의 허점을 논박하고 있다. ②는 논점에서 벗어난 반론으로, 논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그만두어야 한다.’에 대한 논점 ‘경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와 관련한 반론으로, 논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자기 측 주장을 제대로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

(3) 반론 대상

8종의 교과서의 반론은 상대측 선행 입론과 반론을 대상으로 하되 대체로 논증의 의미단위를 구분하여 반론이 제기된 경우가 많았다.³⁸⁾ 드물게 반론의 대상이 모호하게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 ⑦ 그리고 **[반론 대상1]** 동물원에서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점차 야생성을 잃게 됩니다. …… 이처럼 실제 야생에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동물들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자)반론1반대)
- ⑧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온도로 설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 또 에어컨 청소를 자주 하면 **[반론 대상1]**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고 해요. …… 우리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다면 **[반론 대상2]**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걱정스러웠던 **[반론 대상3]**

38) 1명의 토론자가 2개의 의미단위로 반론한 경우가 있었다. 가령, 상대측 토론자 1인의 입론이나 반론에 2개씩의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었을 때 각각에 대한 반론이 이루어지거나 ((라) 일부, (자)), 1명의 토론자가 상대측 2명의 토론자(입론, 혹은 반론)에 대해 반론을 펼친 경우((가) 일부, (마))가 있었다.

환경오염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반론 대상4] 온도에 따른 학습 효과는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신이 만족하는 환경일 때 가장 학습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 따라서 저는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반론2찬성)

⑦은 논제 ‘우리 사회에 동물원은 필요하다.’에 대한 찬성 측 토론자1의 입론 ‘동물원에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발언만을 대상으로 한 반론이다. 한 토론자의 한 가지 논의에 대해 반론함으로써 반론의 핵심이 명료해져 자기주장의 설득력을 높인 경우라 하겠다. ⑦은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한다.’라는 논제와 관련한 상대측의 직전 반론의 이유·근거인 ‘에어컨 사용 자율화로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게 된다.’와 ‘학습 효과를 위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에 대한 반론이다. 그런데 상대측 직전 반론의 내용은 물론, 상대측 다른 토론자의 발언 내용인 ‘에너지 절감’, ‘전기 요금’ 등에 대한 반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반론의 핵심이 모호해지고 논증 구조도 불명확해짐으로써 자기 주장을 제대로 강화하지 못한 사례라 하겠다.

(4) 반론 내용 적시

대부분의 반론이 논점과 관련하여 상대의 발언 중 반박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적시하였으며, 일부에서 반론의 내용을 모호하게 적시하거나 반론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⑦ 찬성 측에서는 최소한의 의무를 정하자는 것이라 하셨는데³⁹⁾…… ([나]반론2 반대)

⑦ 찬성 측에서는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원이 필요하다고 했

39) [상대측 발언] …… 직접적인 희생 대신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돋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 ([나]반론1찬성)

습니다.⁴⁰⁾ 하지만 …… ({자}반론1반대)

- ⑤ 반대 측에서는 실험동물을 사용한 동물 실험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⁴¹⁾ 그러나 …… ({다}반론1찬성)
- ⑥ 찬성 측에서 언급했던 것과 달리, 여름철 실내 온도가 무조건 낮다고 해서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 ({마}반론2반대)

⑦처럼 상대의 발언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⑤, ⑥은 상대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여 적시한 경우로, 어순만 바꾸어 단순 재구성하거나(⑤)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와 그 근거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한 경우(⑥)가 있었다.⁴²⁾ 또 ⑥처럼 반론 내용을 적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다. 드물게 반론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는데⁴³⁾ 이 경우, 반론 이전의 논의들에 대한 고려 없이 미리 준비한 내용만으로 무성의하게 반론을 펴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다.

실제 토론은, 텍스트가 아닌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일회성의 담화이다. 따라서 다른 토론자나 사회자, 청중은 모든 발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론하는 사람이 무엇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지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토론의 궁극적 목적은 상대방과 청중을 설득하는 데 있다. 따라서 반론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
- 40) [상대측 발언] 저희는 우리 사회에 동물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물원이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입론1찬성)
- 41) [상대측 발언] …… 실험동물은 동물 실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전적으로 균일한 상태의 개체일 뿐입니다. 찬성 측에서 말씀하시는 동등한 생명체로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실험동물로 하는 동물 실험을, 동물 복지를 까닭으로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다}반론1반대)
- 42) 상대 발언에서 중심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경우, ③과 같이 발언 내용의 핵심을 짚어 주면 청중의 이해를 돋고 자기 반론의 설득력도 높일 수 있다.
- 43) ‘{마}반론2찬성’, ‘{자}반론2찬성’이 이에 해당한다.

적시할 때 자신의 논증도 분명해지고 주장의 설득력도 높일 수 있다.

(5) 반론 전략

8종 교과서에서 활용한 반론의 방법의 사례를 ‘일부 동의’, ‘상대 허점 및 오류 지적’, ‘자신의 주장 강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① 일부 동의

‘일부 동의’는 40개의 단위논증 중 7건(17.5%)이 있었다.

[상대측 발언 내용 일부 동의] 반대 측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한다고 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도 없고, 학생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 (마)반론1찬성)

이 사례는 본격적인 반론을 펼치기에 앞서 먼저 상대 발언의 일부를 동의한 경우이다. 동의한 발언의 쟁점과 관련하여 이후 내세울 자기 측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음을 강조하게 되는 간단하지만 전략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② 상대 허점 및 오류 지적

‘상대 허점 및 오류 지적’ 19회 중, 논점에 대한 반론은 없고,⁴⁴⁾ 이유에 관한 반론이 5회, 근거에 대한 반론이 14회 있었다. 가장 많이 활용한 반론 전략은 ‘문제 상황 지적(6회)’, ‘간과한 사실 지적(6회)’이었다.

① 찬성 측은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돌발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44) 입론이나 반론 중, 논점에서 벗어난 발언이 있었음에도 ‘논점에 대한 반론’이 없었던 것은 해당 교과서에서 논점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문제 상황 지적】** 미래 사회를 다룬 많은 영화에서 인공 지능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듯이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차 또한 언제든 도로 위를 달리는 흥기가 될 수 있습니다.(**라반론2반대**)

㉡ 찬성 측은 경쟁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과한 사실 지적】** 하지만 이는 경쟁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미있어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라반론1반대**)

⑦은 상대측 ‘이유에 대한 반론’으로, 상대측 주장(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을 뒷받침하는 이유(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안전하고, 기술을 개발할수록 완벽에 가까워질 것이다.)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지적함으로써 상대의 논리적 오류를 공격하고 있다. ⑦은 상대측 ‘근거에 대한 반론’으로, 상대측 주장(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경쟁을 그만두어야 한다.)을 뒷받침하는 이유 ‘경쟁의 부작용’의 근거(경쟁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에 대해 상대측이 놓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③ 자신의 주장 강화

‘자신의 주장 강화’ 44회 중 가장 많이 활용한 전략은 ‘반대되는 이유나 근거 제시(16회)’와 ‘추가적인 이유나 근거 제시(15회)’였다. 한편 ‘의문형 표현으로 상대의 수긍을 유도’한 경우가 4회 있었다.

⑦ 반대 측은 **【상대측 이유(하위 주장)】** 유전자 변형 식품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되는 근거】**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 독일의 예나 대학 연구 팀이 진행한 실험을 들 수 있습니다. …… 이 실험 결과는 **【반대**

되는 이유] 유전자 변형 식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밀해 주고 있습니다.

(가) 반론1찬성)

㉡ 반대 측 토론자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시행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추가적 이유]** 더욱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피해를 감수하며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가적 근거(보완책)]** 직접적인 희생 대신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돋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 반론1찬성)

㉢ **[의문형 표현으로 상대 수긍 유도]** 실제 야생에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동물들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물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자) 반론1반대)

㉡은 반대되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한 전략으로, 상대측의 주장 ‘유전자 변형 식품 완전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에 대한 이유(하위 주장)를 부정하는 이유와 근거를 들어 자기 측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은 추가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 전략이다. 자기 측 선행 입론에서 제시한 주장의 이유⁴⁵⁾에 대한 추가적인 이유와 근거, 특히 ‘최소한의 의무’라는 보완책을 들어 자기 측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경우 보완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면 더 설득력이 높아질 것이다. ㉣은 타당한 이유·근거 대신 의문형 진술을 주장의 정당화 기제로 사용하여 상대의 수긍을 유도한 경우이다. 논리적 기반 없이 상대의 정서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

45) **[이유]** 이기적인 사회 풍조를 바꾸고, 사회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법으로 어느 정도 도덕을 강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장]** 따라서 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내입론1찬성)

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설득력 약화를 초래한다. 객관적 증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때 주장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상 토론 담화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론의 경우, 대부분 논증의 요소는 갖추었으나 논증 구조가 탄탄하지 못하고 일부부적합논증이 많았다. 특히 근거를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또 찬반양측의 입론이 논점과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논점을 고려하여 입론을 더욱 치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반론의 경우, 대부분 논증의 요소를 잘 갖추었으나, 반론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복합논증을 사용하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근거 제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대부분 논점 중심으로 반론을 전개하였고, 반론 대상과 반론 내용 적시가 적절하였으며, 효율적인 반론 전략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V. 학습활동

학습활동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자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학습 내용을 이해·적용·수행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논박 과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활동, 논박을 활용해 보는 적용 활동, 실제 토론을 통해 논박을 수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Anderson & Krathwohl(2001/2005)의 신 교육목표 분류학의 틀의 ‘지식 / 인지과정’과 연결하면, ‘논증 구조 파악 활동’은 주로 ‘사실적·개념적 지식 / 기억하다, 이해하다’로, ‘논증의 적합성 판단 활동 및 반론 내용 구성 활동’은 주로 ‘개념적·절차적 /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로, ‘논박 중심의 토론 실행’은 ‘절차적·메타인지 지식 / 평가하다, 창안하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 15 참조). 한편, ‘토론’이라는 영역적 요소를 감안하여 이론적인 내용에 치중하

기보다 논박의 실제 수행활동에 비중을 두어 학습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질적 요소로, 활동의 유기적 흐름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각 활동이 단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학습자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수준을 조절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 제시와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양적 요소로, 정해진 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적정량의 활동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9종 교과서의 학습활동 중 교육과정의 ‘논리적 반박’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이해활동’에 해당하는 ‘논증 구조 파악 활동’, ‘적용활동’에 해당하는 ‘논증의 적합성 판단 및 반론 내용 구성 활동’, ‘수행 활동’에 해당하는 ‘논박 중심의 토론 실행 및 평가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였다.

1. 논증 구조 파악 활동

‘논리적 반박’에 대한 학습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토론 담화 텍스트 내 입론의 논증 구조를 파악하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논제 및 찬반 입장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주장⁴⁶⁾과 근거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논제 및 입장은 토론 활동의 출발점이며, 특히 논점은 양측 입장 차이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입론 및 반론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6) 여기에서 ‘주장’은 논제에 대한 찬반 입장(최상위 주장)에 대한 하위 주장(이유)에 해당한다.

〈표 9〉 학습활동의 논증 구조 파악 활동 양상

유형	학습활동 내용 예시	교과서
〈1〉 논점 중심의 논증 구조 파악	쟁점별로 입론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정리해 보자.	{다}, {마}, {아}
〈2〉 논증 구조만 고려하여 내용 정리	입론 내용을 주장과 근거로 정리해 보자.	{가}, {자}
〈3〉 논점만 고려하여 내용 정리	논박 진행 과정을 쟁점에 따라 정리해 보자.	{라}
〈4〉 토론 내용만 정리	토론 절차에 유의하여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보자.	{바}
〈5〉 관련 활동 없음	-	{나}, {사}

논점을 중심으로 주장과 근거 파악 활동을 제시한 유형은 〈1〉로, {다}, {마}, {아}가 이에 해당한다. 〈1〉과 〈2〉는 구조도를 활용하여, 찬반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비교하며 논증 구조를 일목요연하게⁴⁷⁾ 파악하게 한 데 의의가 있다. 논증의 ‘구조’ 파악이므로 구조도를 활용한 점이 매우 적절하다. 주장과 근거의 구분 없이 토론 내용을 정리하게 하거나(〈3〉, 〈4〉) 토론 담화 텍스트에 대한 내용 파악 활동을 제시하지 않은 〈5〉 {나}의 경우, 논증 구조의 파악이 반론 활동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는, 토론 담화 텍스트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따로 논증 구조를 다른 활동도 없다. 이 경우 학습자들이 논박 과정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 차후 실제 토론 활동 상황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논증의 적합성 판단 및 반론 내용 구성 활동

논리적 반박은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자신의 의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단계로, 논리적 사고를 포함한 고도의 인지 작용은 물론, 효과적 담화

47) 토론은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담화 과정이므로 토론의 전체 흐름 속에서 논증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운용을 위한 연습 및 일반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활동에, 상대측 입론·반론에 대한 적합성 판단 활동과 더불어 논리적으로 적합한 자기 측 반론 내용을 직접 구성해 보는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텍스트를 반론의 대상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1) 논증의 적합성 판단 활동

먼저 논증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신뢰성·타당성·공정성'의 판단 기준과 그 의미를 안내해야 한다. 이후 판단할 대상 발언을 제시하여 판단 기준에 따라 논증(주장과 근거)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연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10〉 학습활동의 논증의 적합성 판단 활동

교과서	판단 기준 제시	판단 대상 발언	연습 활동	학습활동 예시
{가}	×	별도 담화	○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각각 무엇인지 써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나}	○	본문 담화 일부	○	토론에 제시된 근거 중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 부족한 근거를 찾아 정리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다}	×	×	×	-
{라}	○	본문 담화 일부	○	이 토론에서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판단해 보자. (각 '점검 기준' 의미와 세부 내용 제시)
{마}	○	본문 담화 요약	○	다음 토론자가 어떤 기준으로 상대측 주장을 비판하는지 정리해 보자. (기준 제시: 주장이 공평하지 않다, 주장이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 주장과 근거를 신뢰할 수 없다.)
{바}	○	본문 담화 요약	○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제시한 근거를 정리하고, 그 근거를 평가해 보자. (도움말: 근거를 평가할 때는 주장과 관련하여 타당한지, 내용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지, 공정한지를 따져 보고 판단해야 해요.)

{사}	○	별도 담화	○	다음 발언에 담긴 주장과 근거를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
{아}	×	본문 담화 일부	○	다음 토론 참여자들의 발언에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는 없는지 말해 보자.
{자}	×	×	×	-

위의 세 가지 요소(판단 기준, 판단 대상 발언, 연습 활동)를 모두 고려한 것은 {나}, {라}, {마}, {바}, {사}였다.⁴⁸⁾ 특히 {라}는 각 논점별로 ‘점검 기준’의 의미⁴⁹⁾와 세부 내용, 판단 대상 발언을 제시한 후, 조건에 맞게 판단의 결과와 그 이유를 작성하게 하는 매우 체계적인 활동을 설계한 점이 의미 있다. {마}는 ‘상대 발언 - 반론 - 비판 이유’의 연결 활동을 통해 선행 발언과 반론의 관계 속에서 판단 기준 및 이유를 찾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바}는 단원 앞 부분의 ‘지식마당’에서 설명했던 판단 기준을 ‘도움말’로 다시 요약 제시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활기찬 점이 의미 있다. 한편 {아}의 경우는, 논리적으로 부적합한 근거만 2개 들었는데 논리적으로 적합한 발언도 함께 제시하여 비교하게 하는 것이 적합성 판단에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판단 기준을, 토론 담화 텍스트가 시작되는 교과서 날개 부분에만 제시하고,⁵⁰⁾ 학습활동 시 기준을 고려하도록 따로 안내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한편 {다}, {자}의 경우, 논증의 적합성 판단과 관련한 연습 활동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논리적 반박 활동 기준(신뢰성, 타

48) 이 중 {바}를 제외한 4종은, 적합성을 판단할 때 그 이유를 함께 제시하게 함으로써 판단 기준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게 점이 의미 있다. {나}, {바}, {아}는 주장과 근거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근거의 적합성만 판단하게 한 점이 아쉽다.

49) 교과서 날개 부분의 ‘이끌기’를 활용하여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안내하였다.

50) 토론 담화 텍스트를 읽으면서 발언의 적합성을 따져 보고 확인하게 한 의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당성, 공정성)을 적합성 판단 활동과 연결시키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

2) 반론 내용 구성 활동

반론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논점, 반론 구조, 반론 전략 등을 고려하여 실제 반론 내용을 구성해 보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점을 알아야 양측 의견 대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반론을 펼칠 수 있다. 또 반론의 구조(논점 관련 상대방 의견 요약 → 상대방 의견 일부 공감 → 상대방의 허점 지적 및 자신의 주장 강화 → 근거 제시)를 고려하고 가장 적절한 반론 전략을 사용할 때 반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표 11〉 학습활동의 반론 내용 구성 활동

유형	학습활동 내용 예시	교과서
논점만 고려	쟁점에 따른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상대편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해 보자.	{라}
반론 구조만 고려	타당한 근거를 들어 (가)와 (나)의 주장을 논박해 보자. 이 토론의 논제에 대해 자신은 어떤 입장인지 정리한 후에, 적절한 근거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 보자.	{가}, {마}
*반론 전략을 정리·평가만 한 경우	각 토론자가 상대측의 주장에 반박한 방법을 정리해 보자. 반론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할 때 활용한 방법을 <보기>를 참고하여 쓰시오. 토론에서 논박이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보자. (본문 담화에 사용된 논박의 방법만 평가)	{가}, {다}, {아}

반론 내용을 직접 구성해 보는 활동을 설계한 것은 3종({가}, {라}, {마}) 정도였다. 그러나 이 활동에서 위 세 가지 요소(논점, 반론 구조, 반론 전략)를 다 고려한 교과서는 없었다.

‘논점’만 고려한 경우는 {라}로, 논점에 따른 입장을 정하고 상대편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해 보게 하였다.

‘반론 구조’만 언급한 것은 {가}, {마}로, 타당한 근거를 들도록 함으로써 반론의 설득력을 높이는 활동을 제시한 점이 의미 있다. 그러나 {마}의 경우, 논박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안내 없이 본문 토론 담화 전체를 대상으로 반박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효과적인 논박의 방법을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데다 반박의 대상이 모호하고 범위가 너무 넓어 학습자들이 반론 활동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논박’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논박 활동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합목적적이면서 범위가 한정된 대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는 높이고 학습자의 부담은 줄이는 것이 좋다.

‘반론 전략’을 언급한 것으로 {가}, {다}, {아}가 있는데, 본문 담화에 사용된 토론 전략에 대한 정리·평가 활동은 제시했으나 이를 반론 내용 구성 활동에 활용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가}, {다}는 본문 담화에 사용된 반박 방법 4가지를 각각 언급하였다.⁵¹⁾ {아}는 반박과 재반박의 일부를 들어 반론 방법을 파악하게 하는 데서 그쳤으며, 발문만 보아서는 논박의 방법에 관한 활동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⁵²⁾ 발문을 더욱 정교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반론 내용 구성 활동이 없는 경우가 6종({나}, {다}, {바}, {사}, {아}, {자})이나 되었다. 반론이 실제 담화로 진행되는 토론 과정임을 감안할 때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기보다 직접 반론 구성 활동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습 활동을 통해 단편적이나마 반론 활동을 경험해 봄으로써 실제 토론 수행 시 반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게 해야 한다.

더불어 본문 토론 담화 텍스트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문 담화를 학습활동 등에서 비판적 자료로 활용할 경우, 본문 텍스트 자체가 학습자의 비

51) {가}는 상대측 근거의 부족함 지적, 객관적 수치에 대한 다른 해석, 새로운 근거 제시, 반대되는 실험이나 연구 결과 제시의 네 가지 방법을 들었고, {다}는 다루고 있는 대상의 범위 문제 지적, 대상에 대한 생각의 차이 제시, 상대방이 근거로 든 사례를 주장의 근거로 다시 활용, 다른 대안을 제시하며 상대방 주장의 허점 공격의 방법을 들었다.

52) ‘평가 내용’의 예를 통해 논박의 방법에 관한 활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

판적 활동을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반면 본문 외의 별도 결여 텍스트를 활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본문 텍스트는 모범 토론 담화로 간주된다. 어떤 경우이든 교과서 토론 담화 텍스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텍스트 제작 시 논점, 논증 구조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제작해야 한다. 특히 본문 텍스트 내용이 논리적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비판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논증의 모방 등으로 인해 학습자 토론 활동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논박 중심의 토론 실행 및 평가 활동

1) 토론 실행 활동

토론은 담화 중심 활동이므로 실제 토론의 수행을 통해 논박 활동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때 일반적 토론 절차⁵³⁾를 따르되 교실 토론의 상황을 감안하여 질적·양적 요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즉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논박’ 활동에 초점을 맞추되, 수업 현장 상황(수업시간 등)을 고려하고 학습자가 인지적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⁵⁴⁾

〈표 12〉 학습활동의 ‘토론 실행’ 중 논박 관련 활동

유형	학습활동 내용 예시	교과서
(1)	① 자료 수집 → 토론 계획(우리 측 주장과 근거, 상대측 주장과 근거 예상, 상대측 반론 예상, 우리 측 반론) → 토론 수행	{자}
	② 자료 수집 → 토론 계획(우리 측 주장과 근거, 상대측 주장과 근거 예상, 우리 측 반론) → 토론 수행	{바}, {사} {아}

53) 일반적 토론의 절차는, ‘논제 제시 → 논점 분석 → 자료 수집 → 토론 준비(입론과 반론 계획 등) → 토론 수행 → 토론 평가’로 이루어진다.

54) 논제 미리 제시, 관련 자료 미리 제공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자료 수집 → 토론 계획(우리 측 주장과 근거, 상대측 반론 예상, 우리 측 반론) → 토론 수행	{다}
	④ 자료 수집 → 토론 계획(우리 측 근거, 상대측 근거 예상, 상대측 근거에 대한 우리 측 반론) → 토론 수행	{가}
	⑤ 자료 수집 → 토론 계획(우리 측 주장과 근거) → 토론 수행(반론·재반론 실행)	{나}
〈2〉	① (책 읽기 활동) → 토론 계획(우리 측과 상대측의 주장과 근거 + 자료 찾기) → 토론 수행(반론·재반론 실행)	{라}
〈3〉	①〈책 읽기 제안서 작성 활동〉 토론 계획(우리 측 주장 정리하기) → 자료 수집(주장에 대한 근거 찾아 정리) → 상대방 주장 예측 및 반론 준비 → 토론 수행	{마}

9종 교과서 모두 논박 활동에 초점을 두어 토론을 실행하도록 활동을 설계하였는데 절차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유형 〈1〉은 일반적 토론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 후 입론과 반론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론으로 실행하게 한 경우이다. 특히 〈1〉①이 ‘우리 측’과 ‘상대측’의 입론과 반론까지 고려하여 토론을 계획하게 함으로써 논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한 경우이다. 한편, 논박은 주장과 근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1〉④의 경우, 양측 주장에 대한 고려 없이 근거만을 대상으로 활동을 계획한 점이 아쉽다. 〈1〉⑤처럼 반론에 대한 계획 없이 토론 실행 중 바로 반론과 재반론이 이루어지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활동에 상당한 인지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는 토론 계획과 자료 찾기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설계한 경우인데 반론 계획 없이 토론 실행 시 바로 반론과 재반론이 이루어지게 한 점이 아쉽다. 〈3〉은 쟁점에 따른 우리 측 주장을 먼저 정리한 후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게 한 경우이다. 이 경우 우리 측 주장에 관한 근거(자료)만 준비하게 되면 상대측 주장과 근거를 예상할 수 없어 제대로 된 논박 활동이 펼쳐지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중, 〈2〉[라], 〈3〉[마]는 읽기[독서]와 토론의 영역 간 통합 활동을 설계하였는데 이 경우 정교한 수업 구상 및 수업 현장의 물리적인 시간

활용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토론 준비 과정에서, 찬반양측의 의견 대립의 접점이 되는 논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한데 논점을 고려한 경우는 {다}, {라}, {마}, {비}, {아} 정도였다.

토론 실행 단계에서 논제를 미리 제시한 교과서는 5종으로, {나} 5개,⁵⁵⁾ {비} 4개,⁵⁶⁾ {다} 3개,⁵⁷⁾ {마}와 {아}가 각각 1개⁵⁸⁾의 예시 논제를 제시했다. 논제의 내용으로, 교육과정 '자료의 예'에서 제시한 '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문제나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논제를 미리 제시해 줌으로써 물리적 시간을 조절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준 점, 필요할 경우 논제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선택의 폭을 넓힌 점({나}, {마}, {비}, {아})이 긍정적이다. 또한 자료 수집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게 하고({가}, {나}, {마}, {비}, {아}), 반론·재반론을 위해 상대편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살펴 문제점을 파악하게 한 활동({나})도 논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점이었다.

2) 토론 평가 활동

토론 평가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비추어 학습자의 토론 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일이다. 더불어, 앞서 학습한 중요 내용을 환기시켜 주는 단계이기도 하다. 평가 활동에는 대체로 평가 범주, 평가 내용, 평가 척도, 평가 방식 등이 포함된다.⁵⁹⁾

-
- 55)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한다,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 통일 시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형사 미성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 56)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봉사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보행 시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교내에 무인 방법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 57) 선행 학습을 금지해야 한다, 학교 안에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 58) {마}: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 점심시간에 교내 음악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
 - 59) '평가 내용'은 <표 14>를 중심으로 따로 분석하였다.

〈표 13〉 학습활동의 평가 활동(평가 범주, 평가 척도, 평가 방식)

교과서	평가 범주		평가 척도		평가 방식
	명시된 범주	명시하지 않아 평가 내용으로 추측한 범주	찬반 구분	단계	
{가}	-	입론, 반론, 태도	×	5단계 (☆)	모둠별
{나}	-	입론, 태도	○	3단계 (○△×	모둠별
{다}	내용(입론, 반론), 태도	-	×	5단계 (☆)	모둠별
{라}	입론, 반론, 재반론, 최종 결론, 태도, 토론의 전체 과정	-	○	3단계 (☺☺☺)	모둠별
{마}	-	입론, 반론, 태도	○	2단계(예/ 아니오)	모둠별
{바}	입론, 반론, 최종 발언, 토론 태도	표현	○	5단계(☆)	모둠별
{사}	-	입론, 반론, 태도	×	3단계 (☺☺☺)	모둠별
{아}	-	입론, 반론, 태도	○	5단계 (☆)	모둠별
{자}	-	입론, 반론, 태도, 표현	○	3단계 (☺☺☺)	모둠별

먼저 ‘토론 범주’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중을 설득하는 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설득의 3요소(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지금도 청중을 설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양현모 외, 2019: 105-116). 이를 토론과 결부시키면 각각 ‘논리적 내용 구성 능력’, ‘표현력’, ‘태도’가 토론의 ‘평가 범주’가 될 것이다. ‘논리적 내용 구성 능력’은 다시 ‘입론’과 ‘반론’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9종 교과서 중, 평가 내용을 범주화하여 명시한 경우({다}, {라}, {바})⁶¹⁾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 {마}, {사}, {아}, {자})가

있는데, 범주화하여 평가표를 제시할 경우 학습자가 각 범주별로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현’은 의사소통 능력인 언어적·비언어적·준언어적 표현과 시청각 자료 활용 능력과 관련 있다. 9종 교과서 중 ‘표현’에 대한 평가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는 {배}, {자}로, 주로 비언어적·준언어적 표현 관련 평가 내용을 제시하였다. {배}는 ‘표현’ 범주를 따로 두지 않고 ‘태도’ 범주에 ‘목소리, 말의 속도, 말투, 얼굴 표정 등이 적절하였는가?’를 제시했고, {자}는 범주 구분 없이 ‘말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는 적절했는가?’를 제시했다.

‘태도’는 토론 담화의 특성상 협력적 상호교섭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의적 요소와 관련 있다. 모든 교과서가 토론의 기본적인 자세인 경청·존중·예의와 관련한 평가 항목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평가 방식’으로, 대부분 팀별[모둠별] 평가 활동이 이루어졌는데⁶¹⁾ 이는 교실토론에 적합한 평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평가 척도’는 토론 수행 정도를 객관화하여 평정하는 방법으로, 토론 수행의 질적 특성을 파악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토론의 경우 찬반양측의 수행 정도를 비교하여 승패를 결정지어야 하므로 {나}, {라}, {마}, {배}, {아}, {자}와 같이 양측에 대한 평가가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수행 정도를 세분화하여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5점 정도의 수치로 평가하게({가}, {다}, {비}, {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평가의 정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마}와 같이 ‘예/아니요’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가 내용’은, 특히 ‘논박’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입론과 반론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60) {다}는 ‘내용(입론, 반론)’, ‘태도’로, {라}는 ‘입론’, ‘반론’, ‘재반론’, ‘최종 결론’, ‘태도’, ‘토론의 전체 과정’, ‘종합 평가’로, {배}는 ‘입론’, ‘반론’, ‘최종 발언’, ‘토론 태도’로 구분하였다.

61) {아}의 경우, 토론 방식 및 평가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표 14〉 학습활동의 평가 내용

구분	교과서	학습활동 내용 예시
〈1〉 입론	{가}	① 주장하는 내용이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②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는가? ③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신뢰할 만하였는가?
	{나}	④ 토론의 논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⑤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제시했는가? ⑥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는가?
	{다}	⑦ 쟁점과 관련한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⑧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였는가?
	{라}	⑨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마}	⑩ 논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혔는가? ⑪ 주장과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하였는가?
	{바}	⑫ 각 쟁점에 따른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⑬ 주장과 근거가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가?
	{사}	⑭ 논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는가?
	{아}	⑮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주장했는가?
	{자}	⑯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났는가? ⑰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가}	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상대측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
〈2〉 반론	{나}	-
	{다}	② 상대방의 주장을 근거의 논리적 허점 및 오류를 바르게 지적하였는가? ③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였는가?
	{라}	④ 상대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 ⑤ 상대편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여 효과적으로 논박하였는가?
	{마}	⑥ 적절한 근거를 들어 상대의 주장을 논박하였는가?
	{바}	⑦ 상대측의 주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반박하였는가? ⑧ 상대측 주장에 관한 근거의 불충분함이나 부적절함을 적절하게 지적하였는가?
	{사}	⑨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
	{아}	⑩ 상대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는가?
	{자}	⑪ 상대측 주장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

‘평가 내용’⁶²⁾으로, ‘입론’에는 명확한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구성 능력, ‘반론’에는 자기 측 주장이 더 우위에 있다는 이유와 근거의 구성 능력이 포함된다. 입론의 평가 내용을 잘 갖춘 것은 {다}, {마}, {비}, {자}이다. 특히 {비}는 ‘쟁점에 따른 주장의 명확성’과 ‘주장·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1〉①, ④, ⑩, ⑭의 경우, 입론 시 논제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었는데, 논제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 후 입론이 이루어지므로 입론보다 논점을 고려하여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반론의 평가 내용(타당한 근거 제시, 논리적 반박)을 잘 갖춘 것은 {가}, {다}, {마}이다. {라}, {비}, {사}, {아}, {자}가 반론에서 중요한 적절한 근거 제시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과 {내}가 판정단 이외 학습자들의 평가 내용에 반론 관련 평가 내용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⁶³⁾ 〈2〉⑤는 반대 신문식 토론과 관련한 평가 항목이다.

이상 학습활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증 구조 파악 활동의 경우, 논점 및 논증 구조를 모두 고려한 활동을 설계한 것은 세 교과서뿐으로, 반론 활동의 기본이 되는 입론 내용 파악 활동 시, 논점 및 논증 구조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논증의 적합성 판단 및 반론 내용 구성 활동의 경우, 일부 교과서에서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적합성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한 대상 발언에 대한 논증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연습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반론 내용 구성 활동에서 논점, 반론 구조, 반론 전략을 모두 고려한 교과서가 없었으며, 아예 반론 내용 구성 활동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반론이 수준 높은 토론 단계임을 감안할 때 반론 내

62) 평가 내용을 범주화하지 않은 경우, 평가 내용을 임의로 범주화(입론, 반론, 표현, 태도)하여 고찰하였다.

63) 판정단의 평가(입론: 주요 개념을 잘 설명했는가?, 내용을 잘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했는가? / 반론과 재반론: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의 논점에 대해 반론하였는가?,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가?)와 그 외 학생들의 평가 활동을 따로 두었는데 평가 시에 모든 학생들이 학습목표 관련 내용을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반론 역량 향상을 위한 연습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셋째 논박 중심의 토론 실행의 경우, 9종 교과서 모두 논박 활동에 초점을 두어 토론 실행 활동을 설계하였다. 또 대부분 토론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 후 입론과 반론 계획을 세우고 상대측까지 고려하여 토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논박 활동을 설계한 점이 의미 있었다. 한편 토론 준비 과정에서 논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으나, 미리 논제를 제시해 줌으로써 활동의 부담을 줄인 설계는 긍정적이었다. 넷째 토론 평가 활동의 경우,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평가 범주’ 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며, ‘평가 내용’으로 논박 활동의 바탕이 되는 입론 및 반론과 관련한 구체적 활동 제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

한편, 영역 간 통합을 시도하여 독서의 일환으로 학습활동을 설계한 사례(라), (마)가 있었다. 이 경우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토론 활동에 초점을 맞추되 물리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치밀하게 통합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15〉 학습활동 양상(종합)

교과서	논증 구조 파악 활동		논증의 적합성 판단 및 반론 내용 구성 활동								토론 실행 활동		영역 간 통합
			논증의 적합성 판단				반론 내용 구성						
	논점 고려	논증 과정 고려	기준 고려	연습 활동	판단 대상 발언 제시	논점 고려	반론 구조 고려	반론 전략 고려	연습 활동	반론 대상 발언 제시	논박 중심	예시 논제 제시	
(가)	×	○	×	○	별도	×	△	△	○	별도	○	×	-
(나)	-	-	○	○	본문	×	×	×	×	본문	○	○	-
(다)	○	○	×	×	×	×	×	△	×	본문	○	○	-
(라)	○	×	○	○	본문	○	×	×	○	본문	○	×	독서·토론
(마)	○	○	○	○	본문	×	○	×	○	본문	○	○	독서·토론
(바)	×	×	○	○	본문	×	×	×	×	본문	○	○	-

{사}	-	-	○	○	별도	×	×	×	×	별도	○	×	-
{야}	○	○	×	○	본문	×	×	△	×	본문	○	○	-
{자}	×	○	○ ⁶⁵⁾	×	×	×	×	×	×	본문	○	×	-

VI. 결론

본 논의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하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9종의 토론 단원 교육 내용을 특히 토론 담화 텍스트 및 학습활동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 토론 담화 텍스트가 토론 담화가 지녀야 할 본래적 특성을 실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학습활동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먼저 토론 담화 텍스트 분석 결과, 입론의 논증 구조가 탄탄하지 못한 경우와 논점과의 긴밀한 연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반론은 대부분 논증 요소를 잘 갖추었고 논점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다양하고 효율적인 반론 전략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런데 입론·반론 모두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근거 제시가 매우 부족했다. 다음으로 학습활동 분석 결과, 입론 내용 파악 활동 시, 논점 및 논증 구조를 염두에 둔 활동 설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또 논증의 적합성 판단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론 내용 구성 활동에서 논점, 반론 구조, 반론 전략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토론 담화 텍스트 작성 시, 탄탄한 논증 구조, 논점과의 긴밀한 연관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근거 제시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또

64) 대화 상황을 설정하여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학습활동 설계 시, 성취기준·학습목표·토론 담화 텍스트의 유기적 맥락 속에서 논점 중심의 논증 구조 파악 활동, 논증의 적합성 판단 활동, 반론 내용 구성 활동이 더욱 내실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토론 단원 교육 내용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토론 단원 제작 시 토론 담화 텍스트와 학습활동 간의 유기적 맥락 속에서 교육과정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교육 내용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토론이라는 담화 상황의 복잡다기한 작용 기제를 어렵지 않게 습득하고 토론 지식·기능·전략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토론 교육의 방법과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더불어 토론 단원의 혼용된 토론 용어⁶⁵⁾를 통일하고, 학생들이 토론이라는 담화 상황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합적 정보 매체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는 교과서의 토론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활용하되, 현실적 여건과 학습자 요구를 고려하여 보다 실제적인 토론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본 논문은 2023.10.31. 투고되었으며, 2023.11.13. 심사가 시작되어 2023.12.07. 심사가 종료되었음.

65) ‘반론/반박’의 의미로 ‘1차 반론’({비}), ‘재반론/재반박’의 의미로 ‘다른 반론’({나}), ‘마지막 반론’({다}), ‘두 번째 반론’({마}), 2차 반론({비}), ‘반박’({자})이 함께 사용되었다. 그리고 ‘최종 결론’({라}), ‘최종 빌언’({비}, {자}, {아}), ‘최종 변론’({나}, {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반론’과 ‘반박’의 경우 그 쓰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권대호(2014),『토론 담화의 논증 구성과 쟁론 수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환(2012),『고등 국어 교과서의 토론교육 내용 분석 -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16종 교과서를 중심으로』,『새국어교육』93, 215-244.
- 김주환(2015),『대학생 토론 담화의 반박 전략 분석』,『화법연구』31, 45-71.
- 김지현·전은주(2012),『고등학교 토론 단원 교수·학습의 비판적 분석』,『교사교육연구』51(2), 245-258.
- 김진수·이경옥·이현욱·이경숙·박현숙·강양희·류문숙·박상희·정대승·김봉규·오경준·강 송연(2020),『중학교 국어 3-2』, 서울: 바상교육.
- 김혜진(2018),『국어과 토론 지도 방안 연구-논제·논증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미영·허철구·공규택·박미영·백덕현·양연규·임성규·정태기·정현근·최주욱·황재진 (2020),『중학교 국어 3-2』, 서울: 교학사.
- 노미숙·주진택·김호태·신해연·황희종·소정섭·장선영·노수경·고은정·이지애·이현정 (2020),『중학교 국어 3-1』, 서울: 천재교육.
- 류수열·전영재·이동민·최동진·정지영·강호정·나미나·박인규·박수현·김민선(2020),『중 학교 국어 3-2』, 서울: 금성출판사.
- 문선희(2019),『반론 중심의 논증적 쓰기 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병곤(2004),『논증 교육의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경우(2017),『논설테스트에서의 '반박(反駁)' 기능에 대한 기술적(記述的) 고찰-대학생 토 론 후 최종입장 분석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44, 77-101.
- 박기용(2017),『2015 개정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서울: 월인.
- 박승억·신상규·신희선·이광모(2005),『토론과 논증』, 서울: 형설출판사.
- 박영목·정호웅·이승환·성난주·안순숙·임지은·남영민·예가현·배재성·이정분·전보영 (2020),『중학교 국어 3-1』, 서울: 천재교육.
- 백미숙·이상철(2022),『소통의 기초 스피치와 토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서영진(2011),『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연구-국어 교과서의 '논 증'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어교육학연구』41, 473-504.
- 서영진(2014 7),『교과서 토론 담화 텍스트의 적합성 분석 - 논증 구성 및 상호교섭 양상을 중 심으로』,『국어교육학연구』49(2), 295-351.
- 서영진(2014 7),『토론 교육 내용의 계속성과 계열성 연구』,『국어교육』147, 305-346.
- 신유식·정미선·김영찬·전경원·윤인희·박선주·김정희·이은화·나단비(2020),『중학교 국어 3-1』, 서울: 미래엔.
- 아하영(2018),『고등학생 토론 담화에 나타난 반론 양상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현모·이종혁·김동건·김희성·임정훈·홍현정(2019),『토론, 설득의 기술』, 서울: 리얼커뮤니케이션즈.
- 이도영·강경일·강애리·김미영·김수란·김영석·김중수·김태은·박승환·양은희·오윤주·이진경·한명숙(2020),『중학교 국어 3-2』, 파주: 창비.
- 이삼형·김창원·정재찬·최홍원·김근수·김서경·오리사·오요한(2020),『중학교 국어 3-2』, 서울: 지학사.
- 이선영(2011),『토론 교육 내용 체계 연구: 초·중·고 토론회 담화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영·여은실·박순영·이경진·박성희·정송희·성희은·최은정(2020),『중학교 국어 3-2』, 서울: 동아출판.
- 이정옥(2008),『토론의 전략』, 서울: 문학과지성사.
- 이정찬(2016),『논증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중심으로』,『우리말교육현장연구』10, 403-426.
- 임칠성(2011),『토론 지도의 원리와 실제: 토론의 본질과 토론 지도』,『화법연구』18, 103-130.
- 임칠성·최복자(2004),『토론 수업설계 모형 연구』,『국어교육학연구』21, 391-432.
- 정인석(2002. 04. 27.),『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체계에 대한 연구-현행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와 영재용 국어 교과서 시안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2년 봄 전국학술대회 발표, 건국대 새천년관 502호 강의실.
- 최복자(2006),『토론 교육의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지현·서혁·심영택·이도영·최미숙·김정자·김혜정(2009),『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서울: 역락.
- Anderson, L. W. & Krathwohl, D. R. (2005),『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위한 새로운 분류학: Bloom 교육목표분류학의 개정』, 강현석(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원서출판 2001).
- Kapfer, P. G. & Ovard, G. F. (1971), *Preparing and Using Individualized Learning Packages for Ungraded, Continuous Progress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ns.
- Mager, R. F. (1962), *Preparing Instructional Objectives*, Palo Alto, CA: Fearon.
- Perellman, C. & Olbrechts-Tyteca L. (1969), *The New Rhetoric: A Treatise on Argumentation*, Wilkinson, J. & Weaver, P. (Trans),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Year 1958).
- Toulmin, S. E. (2006),『논변의 사용』, 임건태·고현범(역), 서울: 고려대출판부(원서출판 2003).
- Walton, D., Reed, C., & Macagno, F. (1996), *Argumentation Schemes for Presumptive Reason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illiams, J. M. & Colomb, G. G. (2008),『논증의 탄생』, 윤영삼(역), 서울: 홍문관(원서출판 2007).

2015 개정 중학교 국어 토론 단원 교육 내용 분석

윤향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 9종의 토론 단원 교육 내용을 고찰한 결과, 교과서 토론 담화 텍스트가 토론 담화가 지녀야 할 본래적 특성을 실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학습활동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요컨대 토론 담화 텍스트 작성 시, 탄탄한 논증 구조, 논점과의 긴밀한 연관성,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근거 제시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또 학습활동 설계 시, 성취기준, 학습목표, 토론 담화 텍스트의 유기적 맥락 속에서 논점 중심의 논증 구조 파악 활동, 논증의 적합성 판단 활동, 반론 내용 구성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몇 가지 제안으로, 먼저 토론 단원 제작 시 토론 담화 텍스트와 학습활동 간의 유기적 맥락 속에서 교육과정 목표가 제대로 발현되도록 교과서의 토론 교육 내용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토론이라는 담화 상황의 복잡다기한 작용 기제를 어렵지 않게 습득하고, 토론 지식·기능·전략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토론 교육의 방법과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토론 용어를 통일하고, 학생들이 토론이라는 담화 상황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복합적 정보 매체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는 교과서의 토론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활용하되, 현실적 여건과 학습자 요구를 고려하여 보다 실제적인 토론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심어 토론 단원, 토론 교육 내용, 토론 담화 텍스트, 학습활동,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

ABSTRACT

Analysis of Educational Contents of the Korean Language Debate Unit in Middle School Revised in 2015

Yoon Hyang-rim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contents of the middle school Korean language debate education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t was necessary to be careful in presenting the argument structure, points, and evidence when writing the debate discourse text. In addition, when designing learning activities, it was necessary to more substantially design issues-oriented argumentation structure identification activities, argumentation suitability judgment activities, and objection content composition activities in the organic context of achievement standards, learning goals, and debate discourse texts. When designing debate educational content, the organic context of debate discourse text, learning activities, and curriculum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methods and procedures for debate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so that students can easily understand debate's discourse situation and naturally embody debate knowledge, skills, and strategi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unify debate terms and develop complex information media for debate discourse.

KEYWORDS Debate Unit, Debate Educational Content, Debate Discourse Text, Learning Activities, 2015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Middle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s